

해남공룡박물관, 올해 40만 관람객 시대 연다

‘세계도약 원년’ 선언…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행
시설·콘텐츠 등 대대적 확충…“문화·관광 명소로 육성”

해남공룡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선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높여 공룡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입체적 관람 환경을 조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해남공룡박물관은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해남을 비롯해 여수, 보성, 화순, 고성 등 국내 화석산지 보유 시군과 연계해 역량강화 워크숍, 학술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며 공룡화석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공룡화석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박물관 내부의 공룡 골격 45종 등에 대한 전시물 세척과 보호각 3개동 화석 보존관리도 추진하게 된다.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확충도 실시한다. 박물관의 첫 인상인 안내데스크와 로비, 뮤지엄샵, 휴게공간 등이 대대적으로 리뉴얼된다. 거대 공룡실 천장 마감재 보강 공사도 함께 진행돼 관람의 몰입도를 높이고,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진입로에는 공룡 포토 조형물을 설치해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공룡화석 보호각으로 향하는 650m 데크길은 장미 터널로 변신하고, 노후된 데크도 전면 교체한다. 넓은 부지를 활용한 야외 콘텐츠도 대폭

확충된다. 야외 발굴 체험장은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조성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고고학자가 돼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된다.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리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을 포함해 연간 10회의 기획전시, 거점 박물관·과학관과의 교류전시, 축제 및 명절 특별 공연 등을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남공룡박물관 야외공원



공룡 캐릭터 캘리그래피 공모전과 어린이 공룡 기자단 탐험대, 공룡박물관 캠프 등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오감충족 만들기 체험, 공룡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상설·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 공룡 박물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세계 최대 규모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라는 학술적 가치에 문화·체험·힐링 콘텐츠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기후 위기 적응 대책 45개 사업 추진

물 관리·산림·생태계·농축수산 등 5년간 2000억 투입

완도군은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2026~2030)’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 추진에 나선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칠 계획이다. 완도군의 기후 전망 분석 결과, 향후

평균기온 약 1도 이상 상승, 폭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면 상승과 고수온, 집중호우 증가로 연안 침수와 농수산업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작물 생산성 저하, 어업 환경 변화, 연안 기반 시설과 산업단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엔 세운 대책은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2차 대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완도군의 산업, 연안, 농수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의 비전은 ‘기후 위기에 안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 안심 도시’로 설정하고, 물 관리와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축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적응 주류화 실현 등 7개 부문, 4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김혜국 기자

영암, 연중 쾌적한 버스승강장 유지

497개소 4회 이상 청소 돌입

영암군은 버스승강장을 연중 쾌적하게 관리하는 정기 청소에 돌입해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영암군민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의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버스승강장을 전면 관리하는 정기 청소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용역 기간 지방형 버스승강장 497개소는 일반청소를 4회 실시하

고, 176개소에는 물청소도 병행한다. 버스 이용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스타트엘터 8개소는 32회의 집중 관리로 위생 수준도 한 단계 높이기도 했다. 승강장 의자, 벽면, 거울, 버스도착정보 시스템(BIT), 냉난방기 필터 등 내부 시설, 승강장 주변 2m 이내 바닥까지 청소가 이뤄진다. 불법 광고물과 낙서 제거, 무단투기 쓰레기와 잡초 등 각종 오염물 치우기도 병행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강진청자축제장에 조성한 유채꽃밭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 청자축제 밝힐 유채꽃밭 준비 구슬땀

축제 기간 개방…포토존 마련

강진군은 오는 21일 대구면 일원에서 개막하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에 발맞춰 유채꽃을 선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유채꽃은 4월에서 5월에 피는 대표적인 봄꽃이지만 군은 강진청자축제 기간 중 활짝핀 꽃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해 왔다. 입춘이 지나면서 낮에는 온기가 감돌지

만 야간에는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는 날씨임을 감안해 비닐온실을 설치하고 전국을 탐색해 선발 수집한 유채 품종 종자를 심어 6개월간의 관리기간을 거쳐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강진군은 유채꽃밭을 개방해 관광객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고 꽃향기와 봄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온실내 튼실 꽃 포토존도 배치해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진도철마도서관, 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진도철마도서관은 2026년 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12일까지 철마도서관 누리집과 진도군 공공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진도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또 유아와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부터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까지 다양

하고 알차게 구성돼 있다. 유아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모와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7년째 운영 중인 ‘신나는 영어뮤지컬’과 ‘그림책 미술 교실’ 등이 운영된다.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으로는 ‘북커버 만들기, 독서등 만들기, 경제 기초 이해 강좌’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주]우성산업
Woosung Industrial Co., Ltd.
방음벽 설계 · 시공 전문업체

TEL : 061-334-1017 | FAX : 061-336-1017
주소 : 전남 나주시 배뱃1길 10, 5층 506호(빛가람동)